

# 제주방언의 ‘ㅎ’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洪宗林\*

## I

1.1 제주방언에 고어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업적들에 의해서 여러 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아마 ‘·’ 푼의 존재일 것이다. 제주방언에서는 이것이 非語頭音節에서 거의 소멸되었으나 語頭音節에서는 아직도 그 존재가 확고하여, 대체로 중앙어의 16·17세기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으로는 動名詞文의 자취인데, 가령 의문문에서 보면, 명사만이 아니라 동명사 어미 ‘-음, -을’ 다음에도 疑問添辭 ‘고/가’, ‘디/디아’가 결합된다.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서, 알타이 共通祖語의 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동명사 어미 ‘-으크’ (중앙어의 ‘-겠-’)도 주목할 만하다. 아마 이 形態는 육지의 다른 방언들에서는 물론 옛 문헌들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신라 향가 安民歌에 나오는 ‘알고다(知古如)’의 ‘-고-’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이 방언의 ‘ㅎ’末音 名詞도 고어적인 것으로 주목된다. 중앙어의 경우 15세기 문헌에 80여 개의 어휘가 조사되었다(남광우,1957). 이것들은 근대 후기에 와서 한두 개의 어휘는 그 발음이 다른 음으로 발달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탈락되어 버린다(이기문,1972: 208). 그러나 제주방언에서는 아직도 ‘ㅎ’말음 명사가 꽤 여럿 잔존해 있음이 발견된다. 15세기 문헌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수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어에서는 몇몇 합성어에서 그 자취를 남기고 사라져 버린 지 오랜 지금에 와서, 그 ‘ㅎ’말음 명사들의 실재적인 생생한 모습을 여기서 접해 볼 수

\* 청주교육대 교수

1) ‘ㅎ’ 발음이 다른 음으로 발달된 것으로는 중세의 ‘땅’ (地), ‘집웅’ (堂上)이 근대에 와서 ‘짙’, ‘집웅’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이기문,1972: 208).

있게 된 것은 관심 있는 이들에게 소중한 체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생생한 모습이라는 것이 실은 그리 온전한 것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ㅎ' 발음이 상당한 동요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소멸 단계에 접어든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대체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이들 명사의 'ㅎ' 발음을 의식하고 있는 데 반하여, 3·40대의 젊은 층에서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sup>2)</sup>. 근대 국어의 전기에 나타난 이들 명사의 'ㅎ' 발음도 그 소멸기의 양상이 이와 비슷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2 이 'ㅎ' 음에 대한 관심은 제주방언에서도 꽤 일찍부터 있었다. 후기중세국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1950년대에 제주방언에 있어서도 현용준(1957)에 의하여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후 2,30년이 지난 1980년대에 와서 송상조(1982)와 박용후(1988)에서 다시 논의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 연구 업적들은 한결같이 이 'ㅎ' 음은 명사의 발음이 아니라 음운론적 요인에 의해 외부에서 삽입되어 들어온 것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ㅎ' 음 개입설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2,30년 동안 일관된 셈이다. 합성어<sup>4)</sup>에 개재되는 'ㅎ' 음만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공통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도 이 방면에 편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나 또는 명사와 다른 요소(주로 동사)의 연결과 같은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ㅎ' 음에 대한 조사와 그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본다<sup>5)</sup>.

2)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있다. 3~4년 전에 필자의 고향(성산읍 신양) 노인회의 부탁으로 짤막한 글을 써 보낸 적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노인회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 보내준 글 중에 '... 바르 잡고 ...'란 말이 있는데, 동네 노인층에서는 이 말에 하등의 의의가 없으나 청년층에서는 이 말이 틀렸다고 하면서 '... 바릇 잡고 ...'로 고쳐야 한다고 우기니 글쓴이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이었다. 이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바르'는 'ㅎ' 발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 바릇 잡고 ...'가 아니라 '... 바르 잡고 ...'가 맞으며, '... 바릇더레 감쨌 ...'가 아니라 '... 바르터레 감쨌 ...'가 맞다고.

3) 여기서는 실질형태소의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파생어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4)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ㅎ'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현용준(1957): 내테레, 뒤테레, 우테레, 드르테레, 하나토, 나토, 바르 잡으레 (7)

송상조(1982): 하나토, 나토, 우회, 산 습회도, 드르헤도, 질헛 (6)

박용후(1988): 나히, 나라히, 너히, 우히, 조히, 하나히, 안헤, 뒤테레, 드르테레(9)

그러나 이 자료들은 각기 그 논의에서 적극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의 경우 'ㅎ' 음이 개재되는 이러한 자료들은 'ㅎ' 발음 명사에 연유된 것으로 판명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방언에서 2,30년 동안 'ㅎ' 음 개입설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존재해 온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 방언이라고 해서 유사한 자료들이 달리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료의 수집이 합성어에 편중된 데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경우는 통사적 구성 위주의 자료였으므로 그 'ㅎ' 은 선행어의 발음으로 이해되었지만, 제주방언의 경우는 형태적 구성의 자료 위주였으므로 그 'ㅎ' 은 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개입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합성어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고찰하였을 때에 혹 음운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 업적들이 통사적 구성 자료의 수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그 수집된 자료마저도 논의 전개 과정에서 거의 도외시함으로써, 이 방언의 'ㅎ' 음 개재 현상의 이해가 굴절되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시각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방언의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ㅎ' 음을 고찰하고, 그것이 선행 명사의 발음임을 확인 하는 것이다. 합성어에 나타나는 'ㅎ' 음도 고찰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도 어지까지나 'ㅎ' 발음 명사에 기원하는 것들에 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방언의 'ㅎ' 음 개재 현상이 정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 II

20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있지만, 제주방언의 'ㅎ' 발음 명사들은 그 발음이 거의 탈락되는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들 명사들의 온전한 모습을 쉽사리 관찰하기란 어렵게 되고 말았다. 필자의 청소년기라 할 수 있는 1940~1960년대에는 특히 노년층의 언어에서 이들 'ㅎ' 발음 명사는 흔히 들어볼 수 있던 말들이었다. 그 뒤 대중매체의 급속한 보급과 육지와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특히 중앙어의 영향을 받아 이들 명사의 'ㅎ' 음 탈락 현상도 가속이 붙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의 선행 연구들 가운데 특히 현용준(1957)과 박용후(1988)은 그 저자의 연령층으로 보아, 이들 명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신뢰와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전자에서 조사된 7개 어휘와 후자의 9개 어휘는 소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각주1

5) 물론 여기에는 다른 견해도 발견된다. (남광우, 1957 참조)

참조). 필자에게 있어서도 이들 자료는 대부분 접해본 기억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항목을 얼마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청소년기에 흔히 들어볼 수 있던 말이라 해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억을 더듬어 그 때의 언어 현상을 생생하게 회상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진성기(1976)와 같은 그 당시의 언어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는 자료집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주방언에서 찾아낸 ‘ㅎ’말음 명사는 20여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현지인의 확인 과정을 거쳤음을 밝혀 둔다.<sup>6)</sup> (<부록1> 참조.)

2.1 다음에 통사적 구성(명사+조사/동사)의 ‘ㅎ’말음 명사와 그 용례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드르(野) : ㄱ. 난 드르터레 감찌. (난 들로 간다.)  
           cf. 난 밧터레 감찌 (난 밧으로 간다.)  
       나. 드르테레 <현용준.1957:88 : 박용후.1988:81>  
       ㄷ. 드르은 가민 밥맛이 좋나. (들은 가면 밥맛이 좋느니라.)  
       ㄹ. 는 어드레 감구? (넌 어디로 가니?) 드르 감찌. (들에 간다.)  
           cf. 혹계터레 감찌.(학교로 간다.)
- 2) 바르(海)\* : ㄱ. 난 바르터레 감찌.(난 바르로 간다.)  
       나. 바르은 가민 무시걸 잡아도 잡나.

6) 이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분은 성산읍 신양리 오희삼씨(63세), 김천두씨(63세), 수산리 오평수씨(64세) 등이다. 이분들은 지금은 모두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래 성산읍과 서귀포시는 같은 정의현에 속해 있어서 방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조사되는 자료가 대부분 현행하는 것이 아니라 2,30년 전의 것이므로 결국 어렸을 때의 언어라는 점에서 신양리 중심의 방언 자료로서 하등의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다. 번잡한 분항들을 일일이 확인 해주신 그 성의와 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7) 제주방언의 ‘-터레’를 중앙어의 ‘-으로’로 번역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가인 집터레 가아라. (그 앤 집으로 가더라.)

가이 ㄷ터레 보라. (\*그 애 낮으로 보아라.)

‘-터레’에는 “방향”과 “도달”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 같다.

8) 이 방언에서는 ‘바르’와 ‘바당’이 구별된다. 전자는 썰물 때에 해산물을 채취하는 생업의 장소로서의 바닷가 또는 거기서 나는 해산물, 후자는 바다를 의미한다.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바르는 가면 무얼 잡아도 잡는다.)

ㄷ. 우리 바르 카게.(우리 바르에 가자.)

ㄹ. 우리 바르 잡으레 가게. (우리 바르를 잡으러 가자.)

3) 내(川) : ㄱ. 가이 ㄱ싸 내터레 가라. (그 애 아까 시내로 가더라.)

ㄴ. 내테레 <현용준,1957:88>

4) 우연(園) : ㄱ. 느네 성 우연터레 가라. (너희 형 텃밭으로 가더라.)

ㄴ. 느네 우연네 무시거 갈아시니? (너희 텃밭에 뭐 갈았니?)

5) 도(출입구): ㄱ. 무쉬 도터레 몰라.(마소를 출입구로 몰아라.)

ㄴ. 느랑 도 타라. (너는 도에 담을 쌓아라.)

6) 질(道): ㄱ. 질 칼르지 말라. (남이 가는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지 말아라.)

ㄴ. 베채긴 질레 하영 난다.(질경이는 길에 많이 난다.)

ㄷ. 질렛 돌도 연분이 이서사 춘다.

(길에 있는 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이들 예(1-6)은 주로 생업의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예(1-5)의 (ㄱ)에서 조사 ‘터레’가, 그리고 (1,3)의 (ㄴ)에서 ‘테레’가 발견된다. 이 조사는 사람에 따라 ‘터레’, ‘데레’, ‘드레’로 자유변이되는데 필자에게 있어서는 ‘터레’<sup>10)</sup>가 일반적인 것 같다. ‘터레’, ‘데레’가 ‘터레’, ‘테레’가 되는 것은 선행 명사의 말음 ‘ㅎ’이 결합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1ㄷ2ㄴ)의 조사 ‘은’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행 명사의 말음이 자음임을 적시하는데, 이 때의 자음은 ‘ㅎ’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좋다’의 활용형 ‘좋은’이 [조은]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4ㄴ)의 ‘우연네’는 원형 ‘우연+에’에서 ‘우연-헤> 우연-네’로 ‘ㅎ’음이 약화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탈락의

9) ‘도’라는 말이 생소할지 모른다. 제주에서는 밭 주위에 돌로 담을 쌓아 마소의 출입을 막는데, 만일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담 한 군데를 허물어서 출입하게 된다. 이런 출입구를 ‘도’라고 한다. 담을 허무는 일을 ‘담을 크다’, 담을 쌓는 일을 ‘담을 다다’라 한다. 밭에 출입하기 위하여 담을 허무는 것을 ‘도 크다’, 담을 원상대로 쌓는 것을 ‘도 타다’라 한다.

10) 이 조사는 선행 명사의 말음이 모음이나 ‘ㄹ’일 때에 그 두음 ‘ㄷ’이 ‘ㄹ’로 변이되기도 한다.

산터레(산으로), 밭터레(밭으로), 바당터레(바다로)

혹계터레/혹계러레(학교로), 서터레/서러레(西로):

술터레/술러레(살로), 알터레/알러레(아래로).

단계는 아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를테면, 이 방언의 형용사 '만하다(多)'의 활용형 '만흔/만흔'이 [만논/만는]으로 발음되는 것과 비슷하다. 중앙어에서 ' 많다'의 활용형 '많은'은 표준 발음의 경우 'ㅎ'이 탈락 되어 [마는]이 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6ㄴ,ㄷ)의 '질레', '질렛'의 경우도 원형 '질+에'에서 '질-혜>질레'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ㅎ'음이 약화는 되었어도 완전히 탈락되어 '질에 [지레]'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1ㄷ2ㄷ)의 '캄쩌', '카게'의 어간의 원형은 원래 '가-'이고, (2ㄷ)의 '참으레'의 그것은 '잡-', (5ㄴ)의 '타라'의 그것은 '다-(주9 참조)', (6ㄱ)의 '칼르지'의 그것은 '갈르-'인데, 선행 명사들의 말음 'ㅎ'이 내려와서 이들 서술 동사의 첫소리와 결합 되어 나타난 형태들이다.

이들 예는 (5)의 '도'를 제외하고 모두 후기중세국어 자료에 'ㅎ'말음 명사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5)의 '도'는 제주도의 독특한 생활 양식의 소산이므로 중앙어에서 그 대당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의 예가 공간의 절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들이라면, 다음 예(7-9)는 공간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 7) 뒤(後) : ㄱ. 느 뒤터레 보라. (너 뒤로 보아라.)  
 ㄴ. 영주산 뒤티 산털 보안... <진성기,1957:158>  
 (영주산 뒤에 산터를 보고...)  
 ㄷ. 그 사람 뒤은 든든한가? (그 사람 뒤는 단단한가?)  
 ㄹ. 느 뒤으로 돌아사 보라. (너 뒤로 돌아서 보아라.)
- 8) 위(上) : ㄱ. 그 책상 우터레 보라. 나 연필 시냐.  
 (그 책상 위로 보아라. 내 연필이 있나.)  
 ㄴ. 삼촌은 우터레 올라 아집서. (삼촌은 위로 올라 앉으세요.)  
 ㄷ. 이 우은 무시거 아니 더끝 거냐?  
 (이 위는 뭐 덮지 않을 거냐?)  
 ㄹ. 그 담 우으로 넘어가라. (그 담 위로 넘어가라.)
- 9) 안(內) : ㄱ. 안터레 아집서!!! (안으로 앉으세요.)  
 ㄴ. 느 책 방안네 이서라. (너 책 방안에 있더라.)

---

11) 원형을 밝혀 적으면 '앗읍서'가 될 것이나, 실제 발음은 '아집서'임.

###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ㄷ. 가인 집 안네서만 산다. (그 앤 집 안에서만 산다.)

ㄹ. 방안이 어둡다. (방안이 어둡다.)

ㅁ. 집 안을 잘 펴보라. (집 안을 잘 살펴보라.)

(7ㄱ)(8ㄱ,ㄴ)(9ㄱ)에서도 '터레'가 발견된다. 이것은 그 선행 명사 '뒤', '우', '안'이 'ㅎ' 발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7,8)의 (ㄷ,ㄹ)에서도 확인된다. 조사 '은'과 '으로'는 그 선행 명사의 발음이 자음이여야 실현되는 것이고, 그 때의 자음은 'ㅎ'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뿔+은> 뒤흔> 뒤은', '뿔+으로> 뒤호로> 뒤으로'와 같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예는 오늘날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뿔', '뒤로'와 같이 'ㅎ'이 완전히 탈락되어 버린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9ㄴ-ㄷ)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ㄴ,ㄷ)의 처격조사 '에/에서'의 경우는 '안'이 'ㅎ' 발음을 유지하고 있지만('앳+에/에서') '안-혜/혜서') '안네/안네서'), 그러나 (ㄹ,ㅁ)의 주격 '이'와 대격 '을'에서는 'ㅎ'이 탈락되어 버렸다('안이[아니]', '안을[아늘]'). 이 낱말은 'ㅎ' 발음이 그 소실과정에서 어떠한 수순을 밟고 있는지를 암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뒤'(後), '우'(右)의 경우도 주격조사는 '이'가 아니라 '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예, '뒤가 구린 모냥이여, 그 짐은 우가 허술허다.')

(7ㄴ)의 '뒤티'가 주목된다. '뿔+디(<뒤)'로의 분석이 가능한데, 조사 '디'는 처격 '에'의 이형태('에, 의, 디')로서 선행 명사의 발음이 '디'이나 'ㅎ'일 때에 실현된다(강정희, 1980: 78). 예: '뵤디(밭에), 낫디(낫에), 갯갯디(갯가에), 솟디(솟에), 낭우티: cf. 바당의, 집의, 산의, 물에, 지게에' 등. 이 '디(<뒤)' 형태가 'ㅎ' 발음 명사에 결합되는 것은 'ㅎ'의 내파음이 '디'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sup>12)</sup>.

처격의 '디' 형태가 'ㅎ' 발음 명사에 결합되는 예는 진성기(1976)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민담의 구술자들 대부분이 주로 본도 남부 지방(서귀포시, 남제주군) 거주

12) 그러나 여기서 'ㅎ'의 내파음을 '디'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 하면, 처격의 이형태 '디'와 결합하는 것을 보면 '디' 발음의 명사들 경우와 동일하다 할지 모르나, 그 '디'가 '티'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순정한 '디'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3) 진성기(1976)에서, 위의 'ㅎ' 발음 명사 '뒤, 안, 우'와 처격의 '디'가 결합된 예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調査紙面, 口述者의 주소, 구술자의 연령 순으로 제시함.)

뒤 : 뒤티(에) : (213: 하모, 82), 뒤티로(에로) : (129: 중문, 86)

뒤티서(에서) : (41: 의귀, 67), 뒤티(엇) : (130: 신평, 75)

자였다.<sup>13)</sup> 그러나 '뒤티' 니 '우티' 니 하는 말들이 역시 같은 남부 지방에서 자라난 필자에게 다소 생소한 느낌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나 필자 주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ㅎ'말음 명사 뒤에 결합되는 처격조사의 이형태는 '디'가 아니라 '에' 또는 '의'이다. 예, '뒤에, 뒤에서: 우의, 우의서: 안네, 안네서(9ㄴ,ㄷ)' 등. 그러나 위의 확인자 세 사람(주6 참조) 가운데 둘이 '뒤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동일 지역에서도 언어 사용이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여 준다. (7-9)의 낱말들은 모두 후기중세 국어 자료에도 발견되는 것들이다.

다음의 예(10-14)는 나이 또는 시간에 관계되는 낱말들이다.

- 10) 나(年歲): ㄱ. 이년 나토 몰람시냐?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있니?)  
 ㄴ. 나이 하.(나이가 많아.)  
 ㄷ. 가이 나은 하도 춤 착해여. (그 애 나이는 많아도 참 착해.)  
 ㄹ. 애명하민 이년 나을 쇠이느냐?  
 (아무려면 자기 나이를 속이니?)
- 11) 흐르(一日): ㄱ. 물 어시민 흐르토 못 산다. (물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  
 ㄴ. 흐로운 집의 시난 ... (하루는 집에 있노라니까 ...)
- 12) 저슬(冬): ㄱ. 올저슬린 얼켜여.(올겨울엔 춥겠다.)  
 ㄴ. 저슬 틀민 흐 번 덩겨가라.(겨울 들면 한번 다녀가라.)
- 13) ㄱ슬(秋): ㄱ. ㄱ슬리랑 느도 시집가라.(가을에는 너도 시집가거라.)  
 ㄴ. 가슬 틀민 잔치 험서. (가을 들면 잔치하세요.)
- 14) 올(今年): ㄱ. 올린 풍년이여.(올해는 풍년이야.)  
 ㄴ. 올히 열섬 같앗당 ... (진성기, 1976 :174)  
 (올에 열섬 같았다가 ...)

안 : 안티로(예로) : (266: 호근, 86)

우 : 우티 (예) : (167: 신평, 68 / 231: 강정, 62 / 301: 대정 하모, 52 / 113: 난산, 60 / 88: 제주 용담, 70)

우티레(예로) : (177: 표선, 69)

우티로(예로) : (122: 신평, 61 / 317: 제주 이도, 59)

우티서(예서) : (177: 표선, 69 / 183: 성산 수산, 52 / 226: 강정, 62)

이상에서 보면 제주시(2), 제주 동남지역(7), 제주 서남지역(7) 등으로 나타나 주로 남제주군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성기(1976)에 수록된 설화의 구술자들이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10ㄱ, 11ㄱ)의 '나토', '호르토'는 '낱+도', '호롱+도'로 분석되는 것. 조사 '도'가 '토'로 나타나는 것은 앞의 'ㅎ'이 내려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10ㄴ-ㄷ)과 (11ㄴ)의 '나이', '나은', '나을'과 '호로운'들에서도 조사 '이, 은, 을'이 선행어의 말음이 'ㅎ'일 경우에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나'의 주격 조사가 '이'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의 '뒤', '우'의 경우는 주격조사 '이'가 아니라 '가'와 결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같은 'ㅎ'말음 명사라 해도 그 말음이 약화 탈락되는 양상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12ㄱ, 13ㄱ)과 (14ㄱ, ㄴ)의 '올저슬린', '꺾슬리랑', '올린', '올히'들의 조사는 처격의 '의>이'(+특수조사 'ㄴ/랑')인데, 어느 경우나 선행명사의 말음이 'ㅎ'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보여 준다.<sup>14)</sup>

14) 다만, '올린, 올히'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것 같다. 이 방언에는 '금년'을 뜻하는 말이 '올'과 '올리' 둘이 있다(편이상 전자를 제1형, 후자를 제2형이라 하기로 하자). 제2형인 '올리'는 방언집에 '올히'(석주명, 1945), 'ol, olhi'(현평호, 1985), '올희'(박용후, 1988) '올이, 올히'(제주방언연구회, 1995) 등으로 채록되어 있는 데 반하여 (여기 'ol'와 '올이'의 표기는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혹시 'o.ssi'와 '올리'로 표기해야 할 것은 아닌지?), 제1형인 '올'은 이들 방언집에 모두 빠져 있다. 그러나,

올 금년  
올 굵은 송년  
올 혼 해단 잘 냉기민, ...

같은 예를 보면, 그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올, 올히'를,

올+(의(+ㄴ))/이 > 올+희(+ㄴ)/히 > 올+(희+ㄴ)/리

와 같이 '올'에 처격조사 '의>이'의 결합형으로 파악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올리'의 경우인데, 위의 자료집에서는 그 용례를 보여주지 않아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 사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이것들은 처격조사의 결합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올리가 갑조년(甲子年)이라?  
올리만 지나가면 느네 삶도 팽결치 아니 키여.  
올리만 잘 냉기민 되키여마는, ...

이들 예의 '올리'는 주어 또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처격조사 '에 또는 의>이'와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령 (14ㄱ, ㄴ)을,

14) ㄱ \* 올리에(이) 풍년이며,  
ㄴ \* 올히에(이) 열섬 같앗당 ...

으로 바꾸면 모두 비문이 되고 만다.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의 경우는 '올'이나 '올리'와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나, 처격의 경우는 '올'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4ㄱ, ㄴ)의 '올리', '올히'의 경우도 처격조사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것들 자체가 처격조사의 결합형이기 때문이 아닐까?

-ㄹ+의/이 > -ㄹ+회/히 > -ㄹ+리/리

(12ㄴ,13ㄴ)에 보이는 '틀민'의 경우도 그 선행어의 말음이 'ㅎ'임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원형이 '들-+-민(-면)'인데 어간 '들-'이 그 선행어의 말음 'ㅎ'과 결합되어 '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예(10-14)는 대부분 후기중세국어 자료에 'ㅎ'말음 명사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다만 (11)의 '흐르'가 제외되는데, 이 말은 후기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도 'ㅎ'말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이기문,1972: 77).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이 낱말의 말음 'ㅎ'은 확고한 것으로 본다. (11ㄱ)의 '흐르토'는 필자의 주위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이며(주6의 확인자 셋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부록1> 참조), (11ㄴ)의 '흐로운'도 필자의 기억에 생생할 뿐만 아니라 진성기(1976)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격조사의 경우는 '이'가 아니라 '가' 쪽이 일반적인 듯하다. 이 말도 말음 'ㅎ'이 소멸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의 수명사들(15-19)도 'ㅎ'말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5) 하나(一) : ㄱ. 난 그런 거 하나도 몰른다.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ㄴ. 그인 올리 마흔 하나이여. (그인 올해 마흔하나다.)  
 ㄷ. 무시거 하나이나 되는 일이 시냐?(뭐 하나나 되는 일이 있니?)  
 ㄹ. 아들 하나을 낳았주. (아들 하나를 낳았지.)  
 ㅁ. 도둑 하나을 열리 못 막나. (도둑 하나를 열이 못 막는다.)
- 16) 둘(二) : ㄱ. 이 방인 둘리만 살았시냐? (이 방에는 둘이만 살고있니?)  
 ㄴ. 이 둘이는<sup>15)</sup> 나산 정심칩더레 오라수다.<진성기, 1976 :230>  
 (이 둘이는 나셔서 정승택으로 왔습니다.)  
 ㄷ. 이걸 둘해 나누라. (이걸 둘에 나누라)
- 17) 세(三) : ㄱ. 우리 세이 감수다. (우리 셋이 갑니다.)  
 ㄴ. 우리 셋이(서이가) 감수다.  
 ㄷ. 셋은 빌어사 헐 거여.(셋은 빌어야 할 거야.)

15) '이 둘이는'은 순수한 제주방언이라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경우 조사 '는'은 'ㄴ'이라야 한다. 개신파의 영향으로 보인다. 순수한 제주방언에는 '는, 를'과 같은 증가형은 없다.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ㄹ. 넵 셋은 빌어사 헐 거여.

18) 네(四) : ㄱ. 느네 네이 감시냐? (너희 넷이 가냐?)

ㄴ. 그 배엔 사름덜 네이 타서라. (그 배엔 사람들 넷이 탔더라.)

ㄷ. 느네 넷이 (너이가) 감시냐?

ㄹ. 사름덜 네은 가사 그 일 문 흘꺼여.

(사람들 넷은 가야 그 일 모두 할 거야.)

19) 열(十) : ㄱ. 도둑 하나을 열리 못 막나. (도둑 하나를 열이 못 막는다.)

(15)는 (ㄱ)의 '하나토'와 (ㄴ-ㄷ)의 기사나 조사 '이여, 이나, 을'을 아울러 고찰할 때에 그 선행 명사 '나'의 발음이 'ㅎ'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16-19)의 경우에는 '도'와 같은 자음계 조사의 결합 예가 보이지 않아 그 선행어의 발음이 'ㅎ'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모음계 조사들과 결합하는 경우에 (17,18)의 '세이', '세은', '네이', '네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이, 은'에 선행하는 명사는 그 발음이 자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 '세', '네'의 발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현상을 우리는 중앙어의 용언 활용형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이른바 'ㅅ'불규칙 용언 '잇다 - 이은'과 'ㅎ'발음의 '좋다 - 좋은[조은]'과 같은 경우이다. '이은'은 그 어간 '이-'의 발음이었던 'ㅅ'이 약화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방언에서는 'ㅅ'불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예: '잇다 - 잇어', '낫다 - 낫아'). 물론 명사의 경우 'ㅃ/ㅅ'(邊) ('ㅃ이/ㅅ되')와 같은 쌍형이 있고, '세, 네'도 '셋, 넷'(17ㄴ, ㄹ, 18ㄴ)과 공존하고 있지만, 전자와는 달리 '셋, 넷'의 발음 'ㅅ'이 'ㅅ'에 근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ㅎ'발음의 약화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말하자면, (10ㄴ, ㄷ)의 '나이, 나은'과 같은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16ㄱ)의 '둘리', (19ㄱ)의 '열리'는 (12ㄱ)의 '저슬린', (13ㄱ)의 'ㅃ슬리랑'에서와 같이 'ㄹ+이(의존명사) > 둘히>둘리', '열+이(주격조사) > 열히>열리'와 같은 변화과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결국 이 과정이 '둘이[두리]'(16ㄴ), '열이[여리]'에까지 이르고 있긴 하지만, '둘리', '열리'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6ㄷ)의 '둘헤' 또는 '둘레'도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인데,<sup>16)</sup> 선행명사의 'ㅎ' 발음을 증언하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상의 수명사들이 모두 'ㅎ' 발음 명사라

16) 그러나 (주6)의 세 확인자 가운데서는 한 사람만이 (16ㄷ)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는 사실은 후기중세국어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음과 같은 어휘들(20-23)도 ‘ㅎ’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마(霖雨/芻氣): ㄱ. 마 치민 구데기 인다. (장마가 지면 구데기 인다.)

ㄴ. 옷에 마 틀었저. (옷에 곰피었다.)

21) ㅁ르(粉): ㄱ. 난 ㅁ르 콜레 감쨌. (나는 가루 갈러 간다.)

ㄴ. ㅁ르을 익게 몰앗쨌. (가루를 익게 말았다.)

22) ㅋ(鼻): ㄱ. ㅋ은 보난 물똥코...(ㅋ은 보니 말똥코...) <진성기,1991:159>

ㄴ. ㅋ으로영 입으로영 피가 나고.(ㅋ로랑 입으로랑 피가 나더군.)

23)-들(等): ㄱ. 아이들토 하영 오라서라.(애들도 많이 왔더라.)

ㄴ. ㅁ섯 성제들왕 혼디 가젠.<진성기,1991:147>

(여섯 형제들과 함께 가려고.)

(20)의 ‘마’는 ‘장마’와 ‘매기(芻氣)’의 뜻이 있는데, (ㄱ)은 전자의 의미로, 그리고 (ㄴ)은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ㄱ)의 ‘마 치민’은 ‘망+지민’으로, (ㄴ)의 ‘마틀었저’는 ‘망+들었저’로 분석된다. (21ㄱ)의 ‘ㅁ르 콜-’은 ‘ㅁ룽+글-’로 분석할 수 있으며 (21ㄴ)의 ‘ㅁ르을’도 선행 명사 ‘ㅁ르’의 발음을 ‘ㅎ’으로 보았을 때에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23)의 (ㄱ)(ㄴ)도 각각 ‘-똥+도’, ‘-똥+광’으로 분석하는 데에 이론이 없을 것 같다. 다만, (22)의 경우가 문제다. 조사 ‘은’, ‘으로’로 보아 그 선행 명사인 ‘ㅋ’의 발음이 자음인 것이 분명한데, 그 자음이 과연 무엇이나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17,18)의 ‘세이’, ‘세은’, ‘네이’, ‘네은’에 대한 논의에서 조사 ‘이, 은’에 선행하는 명사의 발음이 ‘ㅎ’일 수밖에 없음을 고찰하였다. 여기서도 선행어의 ‘ㅎ’ 발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 ‘ㅋ’가 중세국어에서 ‘꿍’였고 그것의 발음 ‘ㅎ’이 어두움에 영향을 주어 그것이 유기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기문,1978: 75-76), 결국 그 발음은 ‘ㅎ’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들 어휘들은 ‘ㅁ르’ 말고는 모두 후기중세국어에서도 ‘ㅎ’ 발음 명사로 나타난다.

22 이 장의 冒頭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방언의 ‘ㅎ’ 발음 명사들은 그 발음의 탈락이 현저하여 말기의 증상을 보여준다. 가령, 주격조사의 경우, ‘이’가 기대

###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되지만, '가'('뒤가', '우가', '허르가')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리며, 대격조사도 '을'보다 '르'('ㅎ를 살아도')이 더 일반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고찰한 어휘들은 그 말음 'ㅎ'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중 일부는, 자료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현용준(1957)과 박용후(1988)에서도 제시된 것들이고, 여타의 것들도 진성기(1976)의 여러 口述者들과 세 사람의 확인자들에 의하여 인정된 것들이다. 물론 여기에서 개인어(idiolect)에 의한 다소의 인식차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 어휘 목록에는 몇개의 항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록은 예시적인 것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제주방언의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ㅎ'음을 그 용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그것이 그 선행 명사의 말음임을 확인하였다.

위의 용례들에서 보면, 이 말음 'ㅎ'은,

- (1) 'ㄷㄱㅈ' 등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연접하면, 이것들과 결합되어 'ㄷㅋㅈ' :

'드르터래, 뒤터래, 안터래, 우연터래, ㅈ술 틀민, 바르 카계, 질 칼르지,  
바르 참으래.'

- (2)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연접하면, [h] : '우으로, 뒤으로, 안네, 우연네,

질레, 저습리랑'.

등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 'ㅎ' 말음은 [h], [h̃]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본다. 전자의 경우 그것이 'ㄱ, ㄷ, ㅈ' 등과 융합되어 나타나긴 하지만, [h]음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위에서의 [h̃]의 실현은 그것이 v-v, 또는 n-

- 17) 후기 중세국어에서의 'ㅎ' 음의 연접 규칙을 보면, 'ㅎ'은 'ㄷㅈㅊ'과 연접하면 합하여 'ㅍ트ㅈㅋ', 'ㅅ'과는 'ㅆ'이 되고, 'ㄷ' 앞에서는 'ㄷ', 휴지 앞에서는 탈락하였다.

'녕' + '-고' : '녀코' / + '-습고' : '녀쑤고' / + '-넌' : '녕넌' (李基文, 1972: 135)

- 18) 이 방언에서는 낱말 안에서도 모음간의 'ㄹㅎ'은 [ㄹ르]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哲學[철락], 結婚[결론/절론], 골흐다[골르다](골다), 딸흐다[딸르다](딸다).

다음과 같은 합성어의 경우에도 그 뒷말의 'ㅎ'을 강조해서 발음하지 않은 한 역시 [ㄹ르]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허벅[물러벅], 돌하르방[돌라르방], 말하다[말라다].

이 점 [ㄹ]로만 발음하는 중양어의 경우와 다르다.

v, r-v와 같은 유성적 환경에서 [h]가 약화된 것이다. 이 경우 'ㅎ'은 [h] > [ɦ] > [∅]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것이 탈락된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들이다. 지금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의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노년층에서는 아직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한편, 유성자음이나 휴지 위에서는 그 'ㅎ'음이 탈락되고 만다.

(3) 유성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 위에서 탈락: '드르만, 바르만, 흐르만, 뒤만.

(4) 휴지 위에서 탈락: '드르, 바르, 뒤, 흐르, 우연, 질.'

이러한 'ㅎ'말음의 특성(1-4)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고찰한 명사들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 방언에서는 그것이 거의 소멸기에 이른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그 특성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1)(4)는 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이고(주17 참조), (2)도 이 방언의 동사 활용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들이다. 예, '좋은[toɦin]', '옳은[olɦin>ollin]'. 다만, (3)의 경우가 특이하다. 위의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만' 위에서 이들 명사가 'ㅎ'음을 유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동사의 활용형에서 보면 같은 유성자음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느-' 위에서 말음 'ㅎ'이 'ㄷ'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농나[농나]논나(농느니라)', '좋나[죠타]죠타(죠타니라)', 조사 '만' 위에서도 비슷한 현상(\*드롱만[드르만]>드르만], \*바롱만[바르만]>바르만]이 있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III

3.0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방언의 'ㅎ'말음 명사들을 그 용례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말음 'ㅎ'이 분포에 따라 변이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ㅎ'말음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그 소멸기의 혼란상을 동시에 접해볼 수 있었다.

한편, 이 'ㅎ'말음은 그 명사들이 합성어를 이룰 때에도 나타난다. 제주 방언에는 'ㅎ'개재 합성어가 잘 발달되어 있다. 중앙어에서는 현대어는 물론 'ㅎ'말음 명사가 많이 등장했던 후기중세어에서조차 'ㅎ'개재 합성어는 그리 발달되지 않았었다. 이런 점에서 두 방언은 그 양상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런 합성어에 개재되는 'ㅎ'음은 그 근원이 다양할 지 모르나, 본고의 관심은 그

###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선행명사의 말음에서 유래한 것들에 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ㅎ'이 선행명사의 말음으로 현존하고 있어서 그 어원이 분명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그것이 소실되어 단지 합성어에서 그 흔적만 보게 되는 경우이다. 이제 이 두 경우를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1 다음 합성어들은 그 선행명사가 앞서 고찰한 'ㅎ'말음 명사들이어서 개재된 'ㅎ'의 근원이 분명한 것들이다.(각 항목 뒤의 (숫자)는 위에 제시된 어휘 항목의 순서임.)

- 1) 드르(野)(1) : 드르코녕이(들고양이), 드르팓(들에 있는 밭. cf. 콩밭).
- 2) 바르(海)(2) : 바르칠, 바르케기(cf. 바룻괴기), 바르참이<박용후,1988: 86>.
- 3) 내(川)(3) : 내팓, 내팓동네(川外洞).
- 4) 우연(園)(4) : 우연팓.
- 5) 질(道)(6) : 질컬음, 질칸나이(거리의 여자 <진성기,1976 :195>)
- 6) 뒤(後)(7) : 뒤컬음질, 뒤칩(?).  
cf. 뒤고개, 뒤다리, 뒤드르, 뒤집.
- 7) 우(上)(8) : 우카름<박용후,1988 :14>.  
cf. 옷가름(뒤대), 옷동내, 옷드르, 옷뚝지.
- 8) 안(內)(9) : 안팓(안팍), 안팓살림, 안팓잔치, 안팓거리(안채와 바깥채),  
안팍(고팍), 성안칩(宅號)(?), 안튀(안뒤곶).
- 9) 흐르(一日)(11): 흐르쳐낙(?)
- 10) ㄱ슬(秋)(13): ㄱ슬창마<제주방언연구회,1995>, ㄱ슬팍름<제주방언연구회,1995>.  
ㄱ슬커<제주방언연구회,1995: 박용후,1988>, ㄱ슬팍<박용후,1988>.  
ㄱ슬틀이다<제주방언연구회,1995>.  
cf. ㄱ슬벧, ㄱ슬갈치, ㄱ슬자리.
- 11) 세(三)(17) : 세커리, 세커립질.
- 12) 네(四)(18) : 네커리, 네커립질.
- 13) 마(寫氣)(20): 마쿠데기, 마타슬
- 14) 코(鼻)(22) : 코페랭이(코딱지), 코팽챙이(코납작이)

이 예 가운데서 (10)의 ‘ㄱ슬틀이다’는 후행어가 동사임이 특이하다. (6)의 ‘뒤칩’과 (8)의 ‘성안칩’, 그리고 (9)의 ‘흐르쳐낙’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것들은 각각 ‘뒤/성안+칩’, ‘흐르+저낙’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후행어들은 단독으로 나타날 때에는 첫소리가 평음이지만, 합성어의 후행요소일 때에는 선행 명사의 ‘ㅎ’말음 유무에 관계없이 대부분 격음화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면<sup>1)</sup>,

칩: 뒤칩, 안칩, 부제칩(부자칩), 사둔칩, 처개칩(처가칩), 삼칸칩, 홀아방칩, 오라방칩, 외삼춘칩, 외가칩, 식개칩(제삿칩), 양반칩, 갓칩, 목간칩,  
 불미칩(대장간) 일가칩, 옷넉칩(제, 369), 알넉칩(제, 455), 짐(金)칩, 빵칩,  
 쫄칩, 술칩, 활칩, 전방칩, 상뒤칩, 동넉칩(진, 302), 너럭칩 장남(진, 303)  
 cf. 앞칩, 옆칩, 지애칩, 초칩, 양철칩, 밧칩, 씨칩  
 저낙 : 언(엷)쳐낙, 그지게쳐낙, 오늘쳐낙, 네일쳐낙, 베날쳐낙, 이틀쳐낙,

여기에 개재되는 ‘ㅎ’음에 대하여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ㅎ’ 삽입으로 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어의 말음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삽입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설령, 그것이 현용준(1957) 등에서의 주장대로 후행어 두음의 유성음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본다 해도 ‘옷넉칩, 알넉칩, 엷쳐낙’ 등과 같은 예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그 선행어들이 모두 ‘ㅎ’말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칩, 안칩’과 ‘흐르쳐낙’에서 보듯이 선행어에서 내려온 ‘ㅎ’이 후행어의 첫소리를 유기음화했는데, 그 유기음화된 ‘ㄷ’이 다른 합성어에 복사되어 그 선행어 말음이 ‘ㅎ’이 아닌 경우에도, ‘사둔칩, 외가칩, 양반칩, 불미칩(대장간), 일가칩, 빵칩, 오늘쳐낙, 네일쳐낙, 이틀쳐낙’과 같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 허용된다면, 후자의 예들이 전자의 예, ‘뒤칩, 안칩’과 ‘르쳐낙’들을 선행어의 말음 ‘ㅎ’이 개재된 것으로 보려는 우리의 견해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3.2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에 ‘ㅎ’말음 명사가 80여개 있었음이 조사되

19. 이들 예의 대부분은 진성기(1976)과 제주방언연구회(1995), 박용후(1988)에서 조사한 것이다. 출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지면을 밝혔다.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었다(남광우, 1957). 제주방언에서 우리가 조사한 그것은 23개. 여기에서 중세어에 없는 것 3개를 제외하면 결국 중세어와 공통되는 것은 20개가 되는 셈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명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그 대당이 이 방언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나,<sup>20)</sup> 대부분의 명사들은 'ㅎ'말음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언의 합성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다. 예를 들면,

- 15) 조(粟) : 조팠, 조팏, 호린조팠, 조코고리, 조침, 조르르, 조캉매기.  
조크슬(박,1988: 81)(cf. 조크슬).
- cf. 보리팠, 보리왓, 보릿고고리, 보릿고르.
- 16) 수(雄) : 수커, 수똥, 수캐, 수토질귀.  
cf. 장똥, 장방애기, 장짱.
- 17) 모(方隅) : 모커리 (cf. 박거리, 밧집), 모똥이.
- 18) 그르(株) : 그르왓(세,1995), 그르팠(박용후,1988).
- 19) 들(叢) : 들불북, 들불치름, 들불팏.  
cf. 들불불리, 들불똥(cf. 똥 손다).
- 20) 돌(石) : 돌크르, 돌차귀, 돌켤이, 돌켤이술, 돌쟁이, 돌킹이.  
돌질(박용후,1988), 돌배(돌배)(도,1995).
- 21) 밀(麴) : 밀북.
- 22) 밀(小麥) : 밀치베기, 밀추시, 밀크르, 밀팏.  
cf. 밀크르, 밀끄르, 밀추시.
- 23) 솔(說) : 솔괴기, 솔팠, 솔카죽, 솔치다.
- 24) 암(雌) : 암똥, 암토세기, 암컷, 암캐, 암천복, 암퇘, 암토질귀, 암창개.

여기서 우리는 후기중세국어의 'ㅎ'말음 명사들 가운데에 그 일부가 제주방언의 합성어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다. (23)의 '솔치다'는 합성동사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주어+서술어>의 통사적 구성이 어휘화한 것. 위의 합성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들 모두가 'ㅎ'음이 개재된 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ㅎ'을 가진 것과 갖지 않은 것 쌍형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조크슬/조크슬, 밀크르/밀끄르' 등), 또 어

20)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아마 다음과 같은 어휘가 이에 속하지 않을까 한다. 나조, 썬(源), 밭(野), 쇼(白衣), 출처(源) 등.

면 것은 'ㅎ'이 없는 단형으로만 나타난다 ('ㄴ물불리, ㄴ물똥' 등). 전자의 경우 쌍형의 존재는 대체로 사용자의 연령층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나, 후자의 경우는 'ㅎ'음이 나중에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기원적인 것<sup>21)</sup>인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물(蕎麥)' 한 항목을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이것은 후기 중세국어에 'ㅎ'말음 명사로 나타나지 않으나<sup>22)</sup>, 그 생산성으로 봐서 위의 어례(15-24)에 못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 25) 모물(蕎麥): 모물쳐베기, 모물축, 모물ㄱ르, 모물크르(cf. 모물끄르), 모물팻, 모물핍박.

위의 2.1 목록에도 후기중세국어에 'ㅎ'말음 명사로 나타나지 않은 것 '흐르, ㄱ르, 도' 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모물'이 'ㅎ'말음을 가졌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증거가 없음은 역시 마찬가지다. 후기중세국어의 '모밀'이 중앙어의 경우 '메밀', 제주방언의 경우 '모물/모물'로 변한 것이라면, 이것을 '밀(小麥)'의 'ㅎ'말음과 관련 짓는 것은 그다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訓蒙字會의 "蕎 모밀고 俗呼 蕎麥"이 참고가 된다. 뿐만 아니라,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ㅎ'말음 명사들이 'ㅎ'개재 합성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모물'은 그 발음이 'ㅎ'일 개연성은 크다 할 것이다.<sup>26)</sup>

#### IV

4.0 이상에서와 같이 제주방언에는 일부 명사들의 조사와의 결합이나 서술동사와

21) 여기서 '기원적인 것'이란 선행어가 'ㅎ'말음을 이미 상실한 다음에 후행어 '불리, 동'와 결합된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22) 후기중세국어의 '모밀'이 'ㅎ'말음 명사인지는 아닌지도 불분명한 것 같다. 이 명사의 조사와의 결합 예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창돈, 1964; 한글학회, 1992).  
 23) 그 생산성만으로 보면 '멜(黴)'도 '모물'에 못하지 않은 것 같다.  
 멜(黴): 멜척(cf. 자리척), 멜궤, 멜팻(cf. 멜라), 멜파구리<진성기, 1991:152>, 멜루럭.  
 그러나 이것이 'ㅎ'말음 명사라는 단서가 지금으로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의 연결과 같은 통사적 구성에, 또는 합성어와 같은 어휘적 구성에 'ㅎ'음이 개재됨을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ㅎ'음을 선행 명사의 말음으로 보고 이를 고찰해 왔다. 사실 중세국어의 문헌어에서 이러한 'ㅎ'음을 선행 명사의 말음으로 보는 것은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에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관점에 선 논의가 없었던 것은 기이한 일이라 할 만하다. 제주방언에서의 이 'ㅎ'음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보면 대체로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ㅎ'음의 개입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의 첫소리로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는 위에서 언급된 바 있는 현용준(1957), 송상조(1982)와 박용후(19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용준(1957)이 'ㅎ'음 개입을 주장한 이후 2,30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나 비판이 없거의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제주방언 연구에 관한 한 이 견해는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후자의 견해가 제주방언연구회(1995)에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전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거나 명사와 조사 또는 동사들과 결합하여 통사적 구성을 할 때에, 선행어의 말음이 유성음(모음, 'ㄴ, ㄹ, ㄹ, ㅁ, ㅇ')이고 후행어의 두음이 'ㄱ, ㄷ, ㅅ, ㅂ'과 같은 평음이면 그 후행어의 '두음의 유성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ㅎ'을 삽입한다는 것이다(현용준, 1957: 91-95; 박용후, 1988: 81). 그 'ㅎ'음의 선행 요소가 언제나 모음이나 유성자음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보면, 이러한 음운론적 주장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의 가장 큰 난점은 후행어의 두음이 모음일 때에 나타난다. 우리는 위에서 '바르은, 뒤은, 나이, 우으로, 우연네, 질레, 등'과 같은 '명사+조사'의 많은 예를 보았다. 이들 명사와 조사 사이에 'ㅎ'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경우 'ㅎ'의 정체가 규명되지 않는다. 'ㅎ'이 후행어의 '두음의 유성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예외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

가) 제비집, 개집, 군밭(쌀밭), 보리밭.

나) 손재주, 손바닥, 발바닥, 잠자리.

이들 합성어에서 (가)의 경우는 후행어의 첫소리가 유성음화되고 (나)의 경우는 그것이 경음화가 되는데, 이러한 예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다.

제주방언연구회(1995)에서 보이는 후자의 견해에서도 난점이 발견되기는 마찬가

지다. 'ㅎ' 조사를 설정하면, 설령 조사와의 결합은 설명된다 하더라도, 각 조사들의 이형태의 증가와 그 이형태의 결합조건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기술력의 낭비가 뒤따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동사와의 결합이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무력해지고 만다.

## V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방언에는 'ㅎ' 발음 명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그 실제적인 모습을 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그 자료의 시급한 조사와 정리가 요망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대체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이들 명사의 'ㅎ' 발음을 의식하고 있는 데 반하여, 3·40대의 젊은 층에서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우리는 이 방언에서 20여 개의 'ㅎ' 발음 명사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그 용례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 발음 'ㅎ'은 그 뒤에 조사나 서술동사가 결합될 때에 나타난다.

3. 이 'ㅎ'은 그 놓이는 음운적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 1) 'ㄷ'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연결하면, 이것들과 결합되어 'ㄷ'으로 실현된다.  
'드르터레, 안터레, ㄱ술 틀민, 질 칼르지, 바르 참으레.'
- 2)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연결하면, [h] : '우으로, 안네, 질레.'
- 3) 유성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연결하면, 탈락 : '드르만, 바르만, 뒤만.'
- 4) 휴지 위에서 탈락 : '드르, 바르, 뒤, 흐르.'

4. 위의 규칙들 중에서 특히 (1)과 (2)는 많은 예외가 나타난다. 그 예외의 대부분은 'ㅎ'음의 약화 탈락 과정([h]→[h̃]→[∅])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가령, '흐르'가 조사 '도'나 '이/가'와 결합될 경우 '흐르도', '흐르가'로 나타나며, '안(內)'이 '예, 예서'와 결합될 경우는 '집안네, 집안네서', 그리고 '이/가, 을/르'와 결합될 경우는 '집안이, 집안을'로 나타난다. '뒤(後)'의 경우는, '도, 이/가'와 결합될 때 '뒤도, 뒤가'가 되지만, '은/르, 으로/로, 을/르'와 결합할 때에는 '뒤은, 뒤으로, 뒤을'로 나타남을 본다. 이러한 혼란은 화자의 연령층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일 화자인 경우

###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에도 나타난다. (3)의 경우도 [h][h][∅]의 과정을 생각하게 된다. \*드룸만[드름만>드른만], \*바룸만[바름만>바른만], \*뿔만[뿔만>뿔만]이 있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동사의 활용형에서 보면 같은 유성자음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느-' 위에서 말음 'ㅎ'이 'ㄴ'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놓나[논나>논나](놓느니라)', '좃나[죃나>죃나](좃느니라)'. 이들 명사의 말음 'ㅎ'의 약화 탈락 과정은 휴지 위에서 먼저 발단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유성자음의 경우를 거쳐 지금은 'ㄷ'과 같은 자음이나 또는 모음 위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5. 제주방언에는 'ㅎ'개재 합성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ㅎ'은 기원적으로 선행 명사의 말음으로 보인다. 그 선행명사들은 'ㅎ'말음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유지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합성어들은 선행 명사를 중심으로 후행 명사들이 집결되어 어떤 송이를 이루는 것이 많다.

6 그러나 이 방언의 'ㅎ'개재 합성어가 모두 'ㅎ'말음 명사에 기원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물괴기, 물뿔, 짐패, 소곰국' 등의 'ㅎ'은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다.

#### <참고 논저>

- 강정희(1980),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方言1.  
 김민수(1952), ㅎ助詞 研究 - ㅎ 末音 名詞와 助詞 -, 국어국문학 1.  
 김형규(1963), ㅎ末音 體言攷,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亞細亞研究 11輯.  
 남광우(1957), ㅎ曲用(添用 declension)語 攷, 中央大 論文集 2.  
 박용후(1988), 濟州方言研究(考察篇), 과학사.  
 박용후(1988), 濟州方言研究(資料篇),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석주명(1947), 濟州道方言集, 서울신문社出版部.  
 송상조(1982), 'ㅎ' 介入에 관한 考察,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창돈(196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기문(1972),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이기문(1978),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탑출판사.  
 제주방언연구회(1995), 濟州語辭典, 제주도.  
 진성기(1976), 濟州道民譚, 제주민속연구소.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4, 어문각.

현용준(1957), “ㅎ”插腰音에 對하여, 濟州文化(1)

현평효(1985), 濟州道方言研究(論放篇), 二友出版社.

현평효(1985), 濟州道方言研究(資料篇), 태학사.

<부록 1> 자료 확인

♥ 다음 말에서 많이 들어 본 말이면 <○>, 들어보긴 하였으나 기억이 희미한 말이면 <△>, 전혀 들어본 일이 없는 말이면 <×>표를 쳐 주십시오.

확인해 주신 분 : 오평수씨<오>, 오희삼씨<희>, 김천두씨<김>

<오><희><김>

- 1) 드르(野) : ㄱ. 난 드르터레 감쨌.(난 들로 간다.) .....<○><○><○>  
 <중32>      ㄴ. 난 밧더레 감쨌.(난 밧으로 간다.) .....<○> ×<○>  
              ㄷ. 드르테레(현용준,1957:88 : 박용후,1988:81) .....<○> ×<○>  
              ㄹ. 드르은 가민 밤맛이 좋다.(들은 가면 밤맛이 좋느니라.) ...<○>× ×<○>  
              ㄷ. 는 어드레 감구?(넌 어디로 가니?) 드르 감쨌.(들에 간다.) <○>× ×<○>  
              ㄹ. 호계 감쨌.(학교 간다.)

- 2) 바르(海) : ㄱ. 난 바르터/트레 감쨌.(난 바르로 간다.) .....<○><○><○>  
 <중44>      ㄴ. 바르은 가민 무시걸 잡아도 잡나. ....<○>× ×<○>  
              (바르는 가면 무얼 잡아도 잡는다.)  
              ㄷ. 우리 바르 카페.(우리 바르에 가자.) .....<○><○><○>  
              ㄹ. 우리 바르 참으레 가게. (우리 바르 참으러 가자.) .....<○><○><○>

- 3) 내(川) : ㄱ. 가이 내터레 가아라. ....<○>× ×<○>  
 <중17>      ㄴ. 내테레 <현용준,1957:88>

- 4) 우연(園) : ㄱ. 느네 성 우연터레 가아라. (너희 형 텃밭으로 가더라.) .....<○><○><○>  
 <중77>      ㄴ. 느네 우연네 무시저 갈아시니? (너희 텃밭에 뭐 갈았니?) <○><○><○>

- 5) 도(출입구): ㄱ. 마쉬 도터레 몰라.(마소를 출입구로 몰아라.) .....<○><○><○>  
              ㄴ. 느랑 도 타라. (너는 도에 담을 쌓아라.) .....<○><○><○>

- 6) 질(道) : ㄱ. 질 칼르지 말라.(남이 가는 앞을 가로질러 지나지 말아라.) ...<○><○><○>

제주방언의 'ㅇ'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 <중10> 나. 베채긴 질레 하영 난다.(질경이는 길에 많이 난다.) .....<○× ×○>  
 다. 질렛 돌도 연분이 이서사 촌다. ....<△× ×○>  
 (길에 있는 돌도 연분이 있어야 찬다.)
- 7) 뒤(後) : 가. 느 뒤터레 보라. (너 뒤로 보아라.) .....<○× ×○>  
 <중30> 나. 영주산 뒤티 산털 보안...(영주산 뒤에 산터를 보고...) .....<○× ×○>  
 다. 그 사람 뒤은 든든한가? (그 사람 뒤는 단단한가?) .....<○×○× >  
 라. 느 뒤으로 돌아사 보라. (너 뒤로 돌아서 보아라.) .....<○×○×○>
- 8) 위(上) : 가. 그 책상 우터레 보라. 나 연필 시냐. ....<○×○×○>  
 <중74> (내 연필이 있는지 그 책상 위로 보아라.)  
 나. 삼촌은 우터레 올라 아집서. (삼촌은 위로 올라 앉으세요.) ...<○×○×○>  
 다. 이 우은 무시거 아니 더끝 거냐? .....< × ×○>  
 (이 위는 뭐 덮지 않을 거니?)  
 라. 그 담 우으로 넘어가라. (그 담 위로 넘어가라.) .....<○×○×○>
- 9) 안(內) : 가. 안터레 아집서! (안으로 앉으세요.) .....<○×○×○>  
 <중65> 나. 느 책 방안네 이서라. (너 책 방 안에 있더라.) .....<○×○×○>  
 다. 가인 집 안네서만 산다. (그 앤 집 안에서만 산다.) .....<○×○×○>  
 라. 방 안이 어둡다. (방안이 어둡다.) .....<○×○×○>  
 마. 집 안을 잘 살펴보라. (집 안을 잘 살펴보라.) .....<○×○×○>
- 10) 나(年歲) : 가. 이년 나토 몰람시냐?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있니?) .....<○×○×○>  
 <중14> 나. 나이 하.(나이가 많아.) .....<○×○×○>  
 다. 가이 나은 하도 착해여.(그애 나이는 많아도 참 착해.).....<○× × >  
 라. 애명 호민 이년 나을 획이느냐?(아무려면 제 나일 속이니?)<○× ×○>
- 11) 르(一H) : 가. 물 어시민 호르토 못 산다. (물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 ...<○×○×○>  
 나. 호로운 집의 시난 ... (하루는 집에 있노라니까 ...).....<○×○×○>
- 12) 저슬(冬) : 가. 올저슬린 얼켜여.(올겨울엔 춥겠다.) .....<○×○×○>  
 <중5> 나. 저슬 틀민 혼 번 탱겨가라.(겨울들면 한번 다녀가라.) .....<○×○×○>
- 13) 슬(秋) : 가. 스슬리랑 느도 시집가라.(가을에는 너도 시집가거라.) .....< ×○×○>

- 〈중2〉 나. 구슬 틀민 잔치 험서. (가을 들면 전치하세요.) .....〈○〉×○×○〉
- 14) 올(今年): ㄱ. 올린 풍년이어.(올해는 풍년이야.) .....〈○〉×○×○〉  
 〈중73〉 나. 올히 열섬 갈았당 ...〈진성기,1976 :174〉.....〈○〉× ○×○〉  
 (올해 열섬 갈았다가 ...)
- 15) 나(一) : ㄱ. 난 그런 거 하나도 몰른다.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  
 〈중84〉 나. 가인 올리 마흔 하나이어. (그 앤 올해 마흔하나다.) .....〈○〉×○×○〉  
 다. 무시거 하나이나 되는 일이 시냐?(뭐 하나나 되는일 있니?) 〈○〉×○×○〉  
 르. 아들 하나을 낳았주. (아들 하나를 낳았지.) .....〈 ×○×○〉  
 뎨. 도둑 하나을 열리 못 지킨다(막나). .....〈 ×○×○〉
- 16) 둘(二) : ㄱ. 이 방인 둘리만 살았시냐?(이 방에는 둘이만 살고있니?) ...〈○〉×○×○〉  
 〈중29〉 나. 이 둘어는 나산 정심칩더래 올라수다.(진성기,230) .....〈△〉× ×○〉  
 다. 이걸 둘해 나누라. (이걸 둘에 나누라).....〈 ×○× × 〉
- 17) 셋(三) : ㄱ. 우리 셋이 감수다. (우리 셋이 갑니다.) .....〈○〉×○×○〉  
 〈중52〉 나. 우리 셋이(서이가) 감수다. ....〈○〉×○×○〉  
 다. 놈 셋은 빌어사 헐 거여.(놈 셋은 빌어야 할 거야.) .....〈○〉×○×○〉  
 르. 놈 셋은 빌어사 헐 거여. ....〈○〉×○×○〉
- 18) 네(四) : ㄱ. 느네 네(너)이 감시냐?(너희 넷이 가니?) .....〈○〉×○×○〉  
 〈중18〉 나. 그 배엔 사름덜 네(너)이 타서라.(그 배엔 사름들넷이 탔더라.) ...〈○〉×○×○〉  
 다. 느네 넷이 (너이가) 감시냐? .....〈○〉×○×○〉  
 르. 사름덜 네은 가사 그 일 문 흘꺼여. ....〈○〉×○×○〉  
 (사름들 넷은 가야 그 일 모두 할 거야.)
- 19) 열(十) : ㄱ. 도둑 하나을 열리 못 지킨다(막나). .....〈○〉×○×○〉  
 〈중71〉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
- 20) 마(尙氣): ㄱ. 옷에 마 틀었저. (옷에 곰피었다.) .....〈○〉×○×○〉  
 〈중36〉 나. 마 치민 구태기 인다. (장마가 지면 구태기 인다.) .....〈○〉× × 〉
- 21) ㅁ르(粉): ㄱ. 난 ㅁ르 콜레 감쨌. (나는 가루 갈러 간다.) .....〈○〉×○×○〉



제주방언의 'ㅎ' 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나. 크르을 익게 몰았찌. (가루를 익게 말았다) .....〈○×○×○〉

22) 코(鼻) : 가. 코은 보난 몰똥코...(코는 보니 말똥코...).....〈△×○×○〉  
〈중6〉 나. 코로로영 입으로영 피가 나고.(코로랑 입으로 피가 나더군.) 〈○×○×○〉

23)-들(等) : 가. 아이들토 하영 오라서라.(애들도 많이 왔더라.).....〈○×○×○〉  
〈중23〉 나. 오섯 성제들광 혼디 가젠.〈진성기,1991:147〉 .....〈 × ×○〉

\* (1) 〈×〉의 반응은 빈칸 〈〉으로 남아 있었다. (2) 오평수씨 이외에는 〈△〉 반응이 없었다.  
(3) (3나.)에 응답란을 만들지 못한 것은 필자의 과오임.